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籩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효자(孝子) 의정부 사인공(諱 長孫) 선조의 효심

신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날짜까지 지정해 놓고, 어린이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효(孝), 그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예(禮)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정의 달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와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법적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예전 우리 선현들은 어떠하였는가? 삶이 찌들고 형편이 녹록하지 못하여도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효를 다하였다. 필자는 이런 맥락에서 효자였던 사인공(휘 장손)선조의 효심이 문득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 보기로 한다.

청백리공(諱 之直)께서는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다. 장자는 의정부 사인으로 휘는 장손(長孫)이고, 차자는 충희공이며 의정부 우의정으로 휘는 인손(仁孫)이다. 삼자(三子)는 황해도 관찰사로 휘는 예손(禮孫)이다. 삼 형제분께서는 모두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청백리공께서는 자손들의 효심을 뒤로 66세에 생을 접으시고 (1354-1419) 서거를 하였다.

공께서 서거를 하니 삼 형제분은 부친을 모실 못자리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공의 부친이신 둔촌 선생의 지지 맞은편에 만년지지 좋은 터(지금의 성남시 하대원동 산 3-1)를 찾아 장례 모시기로 하였다. 이 무렵 풍수에 지리가 밝은 명지관 조한필



청백리공 (휘 지직) 묘역 (위는 배위 경주 이씨 묘소)

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못자리를 보더니 말하기를, “이 자리는 참으로 좋아서 자손들이 연이어 과거에 오르고, 현달(顯達, 높은 자리에 올라 이름을 세상에 떨침)하겠으나, 단지 거리낌이 있는 것은, 장자(長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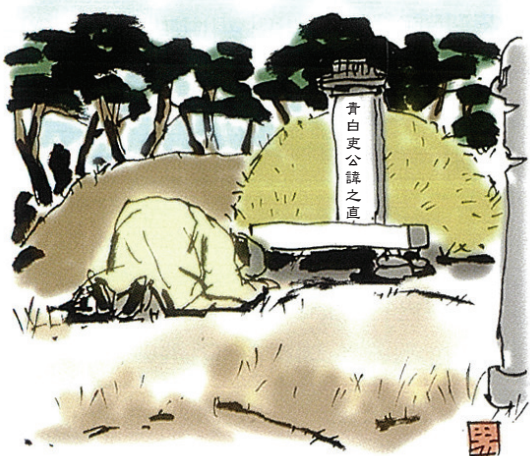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아우들이 읊소하면서 말하기를, “형님에게 불길(不吉)하다면 어찌 이 자리에 입장(入葬,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장사를 지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사인공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아버님을 좋은 지지에 모시는 것이지, 달리 무엇을 꾀하겠는가” 하며, 아우들의 간절함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 장사(葬事) 모셨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다음 해인 1420년 사인공께서 3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지관 조한필의 말이 증험(證驗)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인공께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저버리고 오직 효심으로 부모님을 섬기셨다. 이로 인해 후일 크게 현달한 아우 충희공(諱 仁孫)께서는 항상 형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평생

을 사셨다고 한다.

청백리공의 묘를 쓰고 지관의 얘기대로, 아우인 충희공은 우의정, 조카 광릉부원군(諱 克塽)은 영의정, 광남군(諱 克均)은 좌의정에 올라 삼부자(三父子) 정승에 오르고, 또 다른 아우 휘 예손 선조는 황해도 관찰사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사인공의 외아들(諱 克圭)을 비롯해서 조카들 모두가 조정에 우뚝 서며 광이 8극조정(八克조정)을 이루고, 후세에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니, 과연 명지관 조한필의 말이 증명된 셈이다.

작금에 세태를 둘러보면 부·모·자 지간에도 별의 별일이 다 발생하고 있다. 효도는 아니더라도 그저 어느 가정이든 평안함과 행복만을 바라볼 뿐이다. 필자 또한 생전에 안 계시지만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효자 사인공 선조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가정의 달의 소중함을 일깨워 본다.

- 광릉부원군과충희 충무 문수記



대중회 단신

- 2024년 5월 13일 아침부터 오전 내내 성남시 중원구청 공원과에서 둔촌재실 추모재 주변 수목의 병충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 2024년 5월 9일 전국 청장년연합회(회장 재신)에서 대중회를 방문하여 향후 청장년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 전주 전북종친회(회장 유래)회원 8명이 대중회를 방문하여 지역종친회 활성화 방안 및 지원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 성남시청의 발주에 따라 문화재 담장보수 전문업체인 (주)태항건설에서 5월 20일부터 추모재 담장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본 공사는 7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관리동을 제외한 추모재 재사 전체 담장을 신속 보수하게 된다.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종회

■ 봉수 회장 재임 고유제 봉행



광릉부원군파종회 회장 취임 고유제및 오찬간담회

2024년 5월 9일(목) 광릉부원군파종회 4층 광릉재(廣陵齋)에서는 제16대 봉수 회장 재임과 광원군파종회 석래 신임 회장의 선임을 고유하는 제례를 봉행하였다. 고유제를 올리기 전 문수 총무의 개요 설명과 내·외빈 인사 소개가 있었다.

이날은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대중회 용두 상임부회장, 사인공파종회 용화 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종회 석래 신임 회장, 좌의정 공파종회 충교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문경공파 숭덕재종회 상훈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 개요설명 - 내빈소개 인사 - 봉수 회장 인사, 그리고 지파 종회장 순서로 축하 인사와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광릉부원군 파조님께 고유를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유는 봉수 회장 재임 배경과 광원군파 종회 석래 신임 회장의 선임을 파조님께 알리기 위해 준비한 자리이다. 고유문 중에서 “두 사람은 기쁨보다도 두려움을 안고, 파조님의 고명하시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말은 바 종사에 소임을 다하고, 나아가 할아버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조님께 송조하며, 종친간에는 화목과 돈목의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종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날 봉행에는 초헌에 봉수 회장, 아헌에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종헌에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이 헌작하였고, 집례에 종봉 화수회 총무, 독(讀)

에 만재 부회장, 좌·우 집사에 철래, 종길, 종철, 종경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3부는 화목과 돈목의 시간으로 명일동 소재 식당(황금오리 능이백숙)으로 자리를 옮겨, 지파 종회장의 오찬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문수 총무가 충희공 종회 경래 회장을 시작으로 사인공파종회 용화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순서로 세 분에게 건강과 종회 발전을 위한 건배 제의를 부탁하였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진 능이오리백숙에 인절미와 꿀떡도 곁들인 회식에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없다고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은 건배사를 하였다.

신록의 계절 5월! 아카시아꽃 향기가 코를 자극하고, 계절의 여왕 장미꽃과 거리마다 하얗게 줄지어 피어 있는 이팝꽃 향기로 눈과 코가 호강하는 요즘, 이런 기쁜 일로 만나는 분마다 웃음꽃 활짝 피고 기쁨 가득한 하루였다. 끝으로 모든 행사 준비로 고생한 광릉부원군파종회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광릉부원군파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린다.

■ 암사동 광릉부원군 묘역 환경 미화 작업 실시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2024년 5월 2일(목) 파조이신 광릉부원군 묘역 및 신도비 주변에 환경 미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종길 화수회 회장을 비롯해서 봉수 회장, 만재 부회장, 종훈 부제학공종회 회장, 근재 시인 등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9시 30분 지하철



광릉부원군 묘역 정화작업을 마치고

5호선 명일역에 집결한 회원들은 승용차로 편승하여 묘역에 다달았다. 회원들은 여장을 풀 사이도 없이, 묘소와 주변에 잡초를 뽑고 묘역을 말끔하게 정리하였다.

묘역 정화 작업을 마친 회원들은 묘전에 모여 참배를 드리고 하산 한 이후 자리를 식당(한성관)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담소의 시간을 갖은 후 일정을 모두 마쳤다. 수고한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記

문경공파종회

■ 문경공파종회 광문회(화수회) 춘계 야유회 개최

문경공파종회 광문회(회장 경수)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조의 깊은 유훈인 백대지친 송조돈목을 계승하고자 5월 2일(목) 춘계 야유회를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포천 하늘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종회의 꽃인 화수회, 문경공파종회 광문회는 1989년 창립이 되어 올해 35주년을 맞이했다. 광문회 취지는 “광주이씨 문경

공파 후손으로써 선조의 숭덕을 받들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며, 후손에 대한 충효사상을 고양시키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여 명의 회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시 30분 사당역 환승 주차장에 집결 임대 버스에 승차하여 준비한 따뜻한 떡과 음료수로 아침을 해결하였다. 경수 회장은 이동 중 인사말에서 “화창한 날



한탄강 춘계 야유회

씨에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고, 경래 명예회장은 "실록이 우거지고 요즘 한창인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으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자"고 하였다. 또한 원재 전 대총회 상임부도유사는 "종원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하였으며, 산하 종회장들은 돌아가면서 덕담으로 오늘

행사의 의미를 높여 주었다.

주상절리(柱狀節理)는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굳을 때 육각기둥 모양으로 굳어져 생긴 지형을 뜻한다. 우리나라에는 주상절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는 특히 4차례에 걸쳐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어 절벽과 협곡에 독특한 지질학적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었다. 총 길이는 3.6Km, 폭 1.5m,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코스에는 13개의 교량을 공중다리 형태로 만들어, 스릴과 박진감을 주면서도 난이도는 완만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트레킹 코스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오늘 참석자 중 최고령자 86세인 용관 회원도 참석하여, 2시간에 걸쳐서 안전하게 완주를 하니, 모든 종원이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점심은 한탄강의 특산물인 매운탕, 감자전, 강냉이 막걸리로 늦은 식사를 하면서, 회원 간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 후에

는 고석정을 찾았다. 고석정은 의적 임꺽정이 고석바위의 큰 구멍 안에 숨어 지냈다는 곳으로, 기묘한 바위와 깎아 내린 듯한 벼랑 등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래밭이 천연적으로 형성되어, 계곡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귀경길에는 포천 하늘공원을 들러서, 녹음이 짙은 봄기운에 힘입어,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니, 오늘은 눈과 귀와 입과 코가 행복한 시간이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길 차량에서는, 종인과 며느님들의 가창력과 가무로,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움이 배가 되었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화창한 날씨에 춘계 야유회 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찬을 해 주신 모든 종친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계 야유회를 기약하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념품을 받아 안전하게 귀가 했다.

- 문경공파종회 광문회 총무 종덕記

■ 충주청장년회 문경공묘소 정화 작업

2024년 5월 12일 충주청장년회 회원과 며느리 모임인 화친회 회원들은 문경공 선조 묘소 및 신도비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경공 21대 광희 종손은 소나무 전정 작업을 하였다.



충주청장년회 문경공묘소 정화 작업을 마치고

문경공 선조의 음덕을 기리며 정화 작업을 하고 나니, 온몸은 땀에 젖고 피곤함이 몰려 오지만, 마음만큼은 깨끗해진 느낌이다.

일행은 선조의 음덕을 기리며, 한껏 상쾌해진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발길을 돌렸다.

- 충주청장년회 회장 종우記

■ 정재공(諱 守貞) 묘역 보수작업

문경공파 정재공 종회(회장 경수)는 4월 25일 10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소재 정재공 선조 묘소와 주변이 많이 훼손되어, 잔디 식재와 주변 나뭇가지 제거작업, 잡풀 뽑기 등 작업을 실시하였다.

덕수 총무와 영희 현종은 아침 일찍 8시에 도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종인들은 10시에 도착하여 함께 잔디 운반하기와 식재 작업을



정재공 묘소 정화사업

실시하였다. 이날은 정재공의 후손인 승덕재공종

회, 동고종회, 양호당공종회의 종인들 8명이 함께 하였다. 땀은 나고 힘들었지만 선조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에 없음을 새삼 느끼며, 오전에 작업을 모두 마치니 옷에 묻어있는 황토에서 흠내음이 난다. 선조를 만나는 느낌이 오는 것 같다.

선조께서 잠들어 계신 황토 묘역은, 늘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다.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내뿜는 향기가 아닐까?

- 문경공파종회 정재공종회 총무 덕수記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諱 克增) 서세 530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광천부원군(諱 克增) 서세 530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정경부인 청풍김씨의 제례도 합설로 봉행하였다. 신록이 짙어지는 계절인 5월 3일(음 3월 25일)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는 공의 후손들과 방계 종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부조묘 광천사에 도착하였다.

날씨도 화창하게 맑은 이날 참석하신 내빈으로

는 대총회 용두 상임부회장, 충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등 10개 지파종회의 상임이사 및 본·방손 9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본손 성호 회장, 아헌관에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종헌관에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이 헌작하였고, 전사관에 종판 현종, 집례에 영래 현종, 대축에 종구 현종, 알자에 종안 현종, 찬인에 찬수 현종, 봉향에 성수 현종, 봉로에 종혁 현종, 전작에 종문 현종, 봉작에 광재 현종, 사준에 옥재 현종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향축대를 봉헌해 주신 용두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각 지파 종회와 많은 종인들에게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손 문정지역종회에서



광천부원군 불천위제 봉행을 마치고

제주 1 box를, 수원지역종회에서 향축대 30만원을 봉헌해 주었다. 광천부원군 파조 불천위제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광천부원군 묘역 정화 고유제 봉행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2024년 5월 17일, 좋은 날을 택하여 광천부원군 선조 묘역 정화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묘역 내 원인불명으로 잔디가 고사하여 대대적인 사초 작업을 하면서, 묘역 내 묘비석의 용머리와 무궁화 좌대를 설치 하였고, 묘비석에 잘못된 관



광천부원군 묘역 정화 고유제 봉행

직을 바로잡아 오석에 각자하여 보수하는 한편, 봉분 사토 잔디를 새로이 교체하고, 묘역도 전면적으로 다시 확장하여, 공의 위상에 상응하는 묘역으로 정비하였다. 그동안 30여 년을 지나면서, 비바람과 풍파에 훼손된 재실과 유택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다듬어 공사를 하였다. 앞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보존하여야 되겠으며 후손에게도 자랑스러운 가문으로 이어 나가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 종두記

■ 문정 지역종회 며느리 모임 일본여행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회장 종관) 며느리 모임 양지회(회장 김현숙)에서는 20여 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양지회는 종친 간의 돈독과 유대 강화를 위하여 광주이씨 광천부원군 후손으로 문정동 지역에 사는 며느리들의 모임으로, 애경사에 참석하여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누고, 슬픔은 위로하는 친목 단체이다. 이번 여행은 일본 중부지방에 있는 산악국립공원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신록이 가득한 5월의 푸르름을 가득 안고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펜루트는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일본 알프스의 다테야마를 관통하는 다이내믹한 산악 관광루트로 도야마에서 나가노현까지 표고차

2,400m를 케이블카, 전기 버스, 로프웨이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횡단하는 코스이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14m의 거대한 설벽이었다.

3,000m급의 눈 쌓인 연봉, 구로베 협곡, 동화속 풍경 체험의 시라가와고 합장촌, 게로온천, 나고야 성 등을 3박 4일의 뽀뽀한 일정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시가 아닌 산골과 고즈넉한 농촌 마을의 풍경을 보며, 일상을 벗어난 여유와 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일가 친척들의 모임인 만큼, 애경사에서나 만나 볼 수 있는게 현실인데, 어느덧 30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광주이씨 며느리들의 모임인 양지회가, 이번 여행으로 더욱 끈끈한 정을



문정지역종회 며느리 모임 일본여행

쌓았으며, 앞으로도 대를 이어 자손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느리들의 모임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광천부원군파 문정 지역종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 양지회 총무記

광원군파종회

■ 제413주기 장렬공(諱 潤德) 불천위제 봉행

2024년 5월 21일(음 4월 14일)은 장렬공(諱 潤德)께서 1611년에 서거하신지 41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날 불천위 봉행에는 초헌관에 용철 전 광원군파종회 회장, 아헌관에 종삼 충민공종회 회장, 종헌관에 좌통례공파종회 산하 통제사공종회 형래 회장, 축관에 종찬 도정공종회 회장, 집례에 택재 도정공종회 총무, 집사에는 제례 봉행을 배우기 위해 좌집사에 교재 도정공종회 대의원, 태호 감사공종회 종원, 우집사에 용각 부사공종회 총무, 충민공종회 찬수 총무가 맡아 수고해 주었다.



장렬공 불천위제 봉행

도정공종회 종찬회장은 당일 좌의정공(휘 극군) 불천위제에 참석으로 장렬공 불천위제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며, 양재(현 대종회 총무이사) 전 도정공종회 회장의 모친상으로 도정공종회 임원 몇 명이 참여함에 따라 혼자 불천위 봉행을 준비한 택재 도정공종회 총무의 수고를 치하하고 여

러 일이 겹쳐 어려운 일정속에서도 장렬공 불천위에 참여한 종원들께 고마움을 표시했다.

제례봉행에 앞서 용철 전 광원군파종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후손들의 선조 숭앙에 대한 당부의 애기를 하였고, 좌통례공파종회 산하 통제사공종회 형래 회장은, 10여 년 전에 장렬공 사당에 참배를 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고려하여, 경무공(휘 우항) 사당의 건립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용철 회장님과 택재 총무가 경무공 불천위에 참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불천위 봉행에 앞서 결재 전 대종회 총무 이사의 장렬공 행장에 대한 설명 후 제413주기 장렬공 불천위제를 봉행한 후, 풍년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광원군파종회 산하 종회 종원 간 화기애애한 많은 담소를 나누었다

- 광원군파종회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記

■ 광원군파종회 화수회 춘계 야유회 개최

24년 5월 17일 오전 8시 광원군파종회 화수회원을 태운 버스는 전철 사당역 부근 공영주차장

에서 출발하여 10시 30분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위치한 백야 김좌진 생가에 도착하였다.

광원군 화수회원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살신성인하신, 백야 김좌진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서 묵념한 후, 생가에 모여 김좌진 장군의 어린 시절의 일화와, 장군의 대표적 항일 전투인 청

산리 전투 등, 해설사의 해설을 들은 후 기념관에 둘러 장군의 일대기를 둘러보고, 태안에 위치한 드르니항에 설치된 꽃게다리에 올라, 수려한 태안의 바다를 감상한 뒤, 충남 서산에 있는 간월도에 들러, 조선초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하였다는 간월암을 구경한 후, 태안의 향토 음식인 게

국지를 먹으며 화기애애한 답소를 나누고, 버스에 올라 출발하니 어느덧 안면도 수목원에 도착하였다. 화수회원은 먼저 기념관을 관람한 후 수목원을 한 시간가량 돌아보며, 수목원의 스톤피치를 흠뻑 들이키고, 다음 장소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위치한 안면대교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 원산도리 서해바다의 경치를 감상한 후 전망대 주차장에 모여, 간식과 차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안면대교를 건너오니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충남 보령시 대천면을 잇는 약 7Km의 해저터널을 마주하였



광원군파종회 화수회 아우회 <김좌진 장군 생가에서>

다.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며 세

계 3번째로 긴 해저터널이라 한다.

해저터널을 지나며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 대단함을 새삼 느끼며, 출발 장소인 사당역에 도착하니, 어느덧 저녁 8시가 되었다.

하루종일 관광지를 돌아보니 몸은 많이 피곤했으나 마음은 즐거웠다. 관광지를 구석구석 짜임새 있게 계획하여 안내한 관광전문가 용철 전 광원군파종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마 화수회원 모두가 고마워 할 것이다.

- 광원군파종회 총무 응재記

좌의정공파종회

■ 오봉 좌상공 서세 520주기 불천위제 봉행

좌의정공파종회(회장 충교)는 5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응정리에 위치한 재실 숭모재(崇慕齋)에서, 좌의정공(諱 克均) 서세(逝世) 520주기를 맞아, 불천위(不遷位) 제향을 봉행하였다. 날씨는 만춘(晩春)으로 화사하고 쾌청하여, 하늘조차도 이날의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오봉 좌상공 서세(逝世) 520주기 추모 불천위제(不遷位祭)”라고 인쇄된 현수막을 걸어, 제례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모든 참례자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종회는 불천위제에 참석하는 많은 종인 및 내빈을 안내하기 위하여, 경춘선 사릉역에 안내인을 배치하고, 교통 편의를 위하여 재실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하였다.

이번 불천위제에는 대종회 및 산하 각 지파의 임원 및 종원과 재경화수회 순례단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제례 전, 좌의정공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하고, 숭모재 뜰에 삼삼오오 어울려 좌상공을 추모하는 환담을 나누는 등,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문무(文武)를 겸비한 유장(儒將, 문과 출신의 장수)으로서, 세조로부터 연산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출장입상(出將入相)하신 공에 대한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 행사는 불천위 제례에 앞서 좌상공의 묘역을 참배하였다.

공은 폐주(廢主) 연산군에 의해 사사(賜死)된 뒤 부관참시(剖棺斬屍)와 쇠골표풍(碎骨飄風)의 화(禍)를 당하여 시신은 없고 의관만을 모셨다고 전해져왔는데, 실록에 따르면 당시 죄를 입고 연안부에서 도역을 하던 봉상시 주부 조세보(趙世輔)가 목도하기를 “연안부사가 공의 두골(頭骨)을 베주머니로 싸고, 대광주리에 담아서 표를 세우고 묻은 것을 보았다”며 중종(中宗)에게 “공께서는 조종을 내리 섬겨 폐주에까지 이르렀는데, 국사가 날로 글러짐을 깊이 알고 나라를 위하여 일을 논하니, 이는 곧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주는 도리어 간신이라고 하여, 베어 죽여서 조리돌리고 자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미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만큼 또 초목과 함께 썩혀서는 안 되니, 청컨대 국가에서 그 두골(頭骨)을 거두어 예를 갖추어 매장하여 제사 지내고, 또 팔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한 매장하게 하소서.”라고 상소【중종실록 1권, 중종 1년(1506) 10월 4일】하였고, 이에 중종은 예조(禮曹)에 전교하여 “연안부에 묻어둔 이극균의 두골(頭骨)을 예로써 거두어 장사지내고, 석물(石物)을 세워 제사를 지내라.” 명하였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1506) 10월 7일】는 기록이 있는바, 아마도 공의 묘는 공의 두골(頭骨)



오봉 좌의정공 불천위제 봉행

을 모셨을 것으로 보인다. 2부 행사는 불천위 제례로 제물(祭物)은 공의 평소 소신에 따라 검소하게 차리고, 진설(陳設)은 종손이 행(行)하여 오던 예에 따라 진설하였으며, 특히 제수 중 공께서 생전에 기름 냄새가 나는 전(煎)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제례에서도 전(煎)을 제상에 올리지 않았으며, 초헌관은 충교 지파 종회장, 아헌관은 용두 대종회 상임부회장, 종헌관은 석래 광원군파 회장께서 맡아 헌작(獻爵)하였다.

축관은 종손 계열의 근수 현종이 맡아 독축을 하였으며, 공의 서세 520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한다는 고유문은 본 종회 근환 부회장이 낭독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되었다. 제례에 참석한 제 종원과 내빈은 제례 종료 후, 인근의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들며 좌상공을 추모하고 환담하며 화기애애한 친교의 시간을 갖는 등, 제례는 광이 제 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 좌의정공파종회 부회장 근환記

■ 관찰사공종회 화수회 춘계 아우회 개최

관찰사공종회 화수회(회장 재석)는 5월 10일 춘계아우회 겸 선조 묘역 순례를 하였다.

오전 9시 휘경동 광이회관 앞에서 회원 35명을 태운 임대 버스가 출발하고, 대종회 상임부회장 외 2명이 각자 출발하여, 하남시 덕풍동 시조비 묘역을 탐사하고, 성남시 하대원동 소재 둔촌선생, 청백리공, 관찰사공, 참판공 묘역을 둘러 탐사하며, 이날의 순례를 마쳤다.

이동 중에는 선대 묘소와 관련된 대종회 주병



관찰사공종회 화수회 선조묘역 순례

문화이사의 자세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들었다. 이날 화수회원들은 흥겹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일정을 보내고, 점심 식사후에는 남한산성 행궁을 방

문하여,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역사 탐사를 하면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 종우記

승모사(崇慕祠) 준공 및 고유제(告由祭) 봉행(奉行)

2024년 5월 25일(일) 11시 좌통례공파 집성촌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매원마을 감호정사(鑑湖精舍) 경내에서는 감호당(鑑湖堂, 諱道章) 선생 사당 승모사(崇慕祠) 준공 및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각 단체 회원 및 참사자 45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승모사 준공 고유례, 지신밧기 풍물이 끝난 뒤 11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감호당종회 수원(壽遠) 회장은 인사에서 “승모사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고유례가 감호당 손조님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후손들의 선조님에 대한 숭조정신과 선양하는 마음이 함양되어, 종인들의 단합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 감호정사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김재욱 칠곡군수는 축사에서 “감호당 사당은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당을 시작으로 칠곡군의 전통문화와 학문이 널리 전승되기를 기대



승모사 준공 및 고유제 봉행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희용 국회의원은 “조선조 선비문화를 비롯한 광주이씨 집성촌의 다양한 민속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뜻깊은 공간에 감

호당공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세워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지면을 빌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승모사(崇慕祠) 준공 고유문(告由文)

조상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인걸지령(人傑地靈) 동쪽 죽곡산(竹谷山), 서쪽 산두산(山斗山), 남쪽 안산(安山), 북쪽 용산(龍山) 매화낙지형(梅花洛地形) 산천(山川)의 기운이 서린 곳 매원(梅院)에 석담(石潭 李潤雨)公께서 감호정사(鑑湖精舍)를 지어 유학(儒學)의 거유(巨儒)로 추앙(推仰)되었으며 웃갓, 매원, 돌밭의 마을에서 수많은 급제자와 4대한림(四代翰林) 3대당상관(堂上官)이 나셨네. 무릇 일컬어 감호정사를 장원방(壯元坊)이라 하였네. 그의 셋째아들 감호당(李道章)公께서 유학의 도(道)를 이어 감호정사의 주인(主人)이 되셨네.

벽진(碧珍) 완석정(浣石亭), 이언영(李彦英), 모당(慕堂) 손처눌(孫處訥), 한강(寒岡) 정구(鄭逵),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 수학(修學)하고, 문학(文學)으로 선발(選拔)되고 성현도찰방(省峴道察訪), 선공감직장(繕工監直長),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을 역임하셨네. 엄격함으로 집안을 꾸려 나갔고, 외로움으로 자질(子姪)들을 가르쳐 금초(金貂)가 빛을 발하고, 노모(老母)를 판여(板輿)로 봉양(奉養)하고,

3년 시묘(侍墓) 하셨네. 공이 늙고 병들어 나라에서 그의 둘째 아들에게 녹용(錄用)할 것을 명하여 자여도찰방(自如道察訪)이 되었으며, 정사(丁巳) 1677년에 타계(他界)하시니 향년(享年) 71세였네.

이후 손자(孫子) 태명(台命)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귀(貴)함으로, 공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追贈)되었네. 감호정사(鑑湖精舍) 연못에 비친 수월헌(水月軒), 불괴(不愧)와 무첨(無忝)은 선조님의 덕목(德目)이로세. 감호당(鑑湖堂) 이도장(李道章) 선생의 사당(祠堂)이 없음을 고심하던 중,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광명(光明)의 기운이 있어, 감호당종회의 결의로 감호정사 옆에 공의 사당(崇慕祠)을 건축하기로 하여, 광주이씨대종회, 관찰사 공종회, 좌통례공종회, 칠곡공회 및 종손 그리고 종인 여러분의 후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갑진초하(甲辰初夏)
감호당공 후 11대손 수상 경서

참석해 주신 주요 외부인사는

관계 : 임휘승 칠곡부군수, 심정보 칠곡군의회의장, 정희용 국회의원, 차영식 왜관읍장, 이수담 전국회의원, 서훈 전국회의원

유림 : 이수학 성산이씨 응화종손(북비고택), 채영주 인천채씨 투암종손, 송만수 야성송씨 야계종손, 최진동 경주최씨 백불암종손, 박중곤 밀양박씨 배암종손, 이태훈 경산이씨 학가재종손, 이병구 광주이씨 석담종손, 이상곤 광주이씨 박곡종손, 장병룡 인동장씨 남파공파, 최웅학 영천최씨

대종회장, 일직손씨 모당종회, 영천최씨 법산종회, 광산이씨 영남문중

유림단체 : 이기환 단민회장, 장완석 왜관 단민회장, 정대열 칠곡 유도회 회장, 이수군 지천 대경신협 이사장, 강신석 지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창호 지천 농협조합장, 김종철 왜관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종덕 왜관 농협조합장, 임의도 대한노인회 칠곡군 지회장, 이윤갑 전 계명대학 교수

학회 : 이동건 퇴계학회 이사장, 정재담 한강학회 이사장, 최인돈 박약회 회장, 류경선 삼무회 회장, 구본욱 대구학회 회장, 박희일 함양박씨 대송종중

회장, 오동섭 백산서법연구원장, 박영달 각자협회 이사장, 권기봉 금오연구소 이사장, 이성원 칠곡신문 이사장, 최찬 동아건축 사장, 문진홍 승모사 건축사, 박도규 대보사 사장

문중 : 이용두 대종회 상임부도유사, 이재석 관찰사공종회 회장, 이택수 좌통례공파종회 회장, 이용화 사인공파종회 회장, 이승호 칠곡 종회장, 이택동 시조묘소수호위원장, 이수생 대구경북종친회장, 이병국 한죽정 종회장, 이태석 유경공 종회장, 이만환 진경공 종회장, 이종석 박곡 종회장, 이동석 참봉공 종회장, 이달영 전 현감공종회장.

광주이씨 광문화 정기 행사



광주이씨 광문화 정기 행사를 마치고

광주이씨를 빛내는 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광주이씨 문화친목회(약칭 광문화)는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6시 명동소재 퍼시픽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들께서도 연예계, 체육계 인사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고 하였다. 또한 대종회 주영 회장은 최근 대종회의 발전 방향과 시행 중인

이날 모임은 1부 식사, 2부 개회식 및 보학 강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달곤 회장은 인사에서 “광이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더욱 훌륭하고 관심있는 회원의 확보와, 회원 상호간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회원들의 모임이 되도록,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확보하여, 저변확대를 하겠다면서 회원

제도와 시행코자 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강사로 초빙된 석담선생 16대 주손 병구 박사가 「둔촌 선조의 학문과 칠곡지역 광주이씨의 학맥 그리고 집성촌 매원마을」을 주제로 석담선생의 학문과 매원마을이 집성촌으로 발전해온 경위, 그리고 매원마을이 현재의 마을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에 등록함으로써, 앞으로 집성촌으로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광주이씨 종인들은 물론 대종회 등 각 지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후원을 부탁한다는 인사가 있었다.

이날 정기 모임에는 광문화원 약50여 명이 참석하여, 오랫동안 만난 상호 간의 안부와 의견, 답소를 나누며 광이 종인들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정기회의에는 보성지역 집성촌의 유래와 현황에 대하여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 광주이씨 광문화 총무 종철 기

2024년 대구경북종친회 단합대회 겸 정기총회 개최

광주이씨 대구경북종친회(회장 壽生)는 5월 11일(토)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 겸 정기총회를 가졌다.

아침 8시 칠곡 왜관과 대구에서 관광버스 3대가, 종인들을 가득 태우고 출발하여, 청도 휴게소에서 모두 내려 상호간 인사를 나누었다. 울산 태화강변 우거진 대밭 숲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바다가 훤히 보이는 바닷가 식당에서 출출한 배를 달래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불었으나, 오랜만에 맞아보는 바닷바람이라 그리 싫지는 않았다. 식사와 총회를 마치고 울산 대왕암과 둘레길을 산책하고, 많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무사히 귀가하였다. 이날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각 지파 회장님, 그리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진행에 질서있게 잘 따라준 참가자와, 행사 진행에 봉사해 주신 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광주이씨 대구경북종친회 소개

廣州李氏 대구경북종친회의 연혁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종친회가 6.25 전쟁 시기에 발족이 되어서, 부득이 6.25 전쟁상황을 잠시 뒤돌아 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발발(勃發)이 되었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약 1달 남짓만인 7월 말에서 8월 초 왜관(倭館) 낙동강까지 밀렸다. 다부동 전투가 8월 3일부터 시작이 되고,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되자, 8월 중순경 UN연합군의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의 지시로 8월 16일 약목에서 유학산까지 낙동강 일대에 용단폭격을 감행하였다. 낙동강 전선의 방어가 위협해지자 맥아더 장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였다. 이날을 우리는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또 기세가 오른 연합군은, 10월 19일 평양을 정복하자, 10월 25일 중공군이 개입하였다. 그리하여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후퇴하였다. 그리고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18일 38선을 재돌파하였다. 전쟁 발발 약 1년쯤 되던 6월 23일 처음 휴전 협정 논의가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휴전 협정을 반대하고, 계속 진격하여 중국 본토 공격을 주장하였다. 확전을 두려워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4월 11일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였다. 그리고 1952년 군사분계선 설정에 가 조인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1951년부터 휴전 협정이 시작되고, 1952년 하반기 전쟁이 소강상태에 있을 때,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우리 광주이씨 종인들이, 전쟁을 겪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도 궁금하고, 얼굴도 보고 싶어 모여 생사를 확인하고, 정담을 나누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약속한 것이 “광주이씨 대구경북종친회(廣州李氏 大邱慶北宗親會)”의 시작이다. 초대 회장에는 건영(建榮) 현종이었고, 모임 장소는 동천(東村) 후생원(厚生院), 건영 회장이 운영하였고 현 동촌성당 부지와 대구 SOS어린이 마을 부지를 회사(喜捨)하였다고 함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1952년부터 1~4대 회장이 22년(1952~1974) 맡아왔고, 5대~26대(1975~현재)까지 51년, 총 73년간을 이어오고 있다. 많은 종인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이렇게 긴 세월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 때는 등록 종인이 오백여 명이나 되고, 각종 행사 참여 인원이 2~3백여 명이



2024년 대구경북종친회 단합대회 겸 정기총회 개최

되었으나, 참여도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었으나, 근간에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모임을 이어오던 중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종인간의 친목의 정을 나누고, 나아가서 대구경북의 광주이씨 종사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 4월 10일 “광주이씨 대구경북광친회(廣州李氏 大邱慶北廣親會)”가 발족이 되었다. 초대 회장은 충환(忠煥) 현종이었고, 2대 회장은 표진(豹鎭) 종인이었으며, 현재까지 50년간을 이어오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1988년 6월 “광주이씨 대구경북청장년회(廣州李氏 大邱慶北靑壯年會)”가 발족이 되었고, 초대 회장은 용태 현종이였다. 대구경북종친회가 이 두 모임의 모태가 되었고, 이 두 모임은 지금까지 대구경북의 대소(大小) 종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 경북 종친회가 우리 “광주이씨는 백대지친(廣州李氏 百代之親)”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친 모임이라는 것은 깊은 역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 대구경북종친회장 수생 기

2024년 입춘회(立春會) 정기총회 개최

2024년 5월 19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돌밭) 소재 동산재(東山齋)에서는 수팔(壽八) 회장 주관으로 입춘회 정기총회가 낙촌공(諱 道長)의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내빈으로는 좌통례공파종회 회장 택수, 관찰사 공종회 진호 재무이사, 좌통례공파종회 용주 총무 및 칠곡지역의 칠곡종회 승호(承鎬) 회장, 대구경북종친회 수생(壽生) 회장,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택동(澤東) 회장 등 다수 인사가 참석하여 송조정신 함양과 종인 간 화목의 장이 되었다.

입춘회(立春會)는 석담선생(諱 潤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주부공(諱 榮雨)으로 출계하신, 낙촌공(洛村公, 諱 道長)께서 관직에 계시던 인조 15년



2024년 입춘회 정기총회 개최

(1637) 향내(鄉內)에, 기계가 높고 문한(文翰)이 뛰어난 선비들과 교유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창시(創始)하여 현재까지 약 387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당시에는 자손(子孫)·종인(宗人)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 명성이 있는 타 문중 선비들이 모여서 정담(情談), 정담(政談), 시사(時事), 시사(詩詞) 등을 논하고 향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총회를 마친 참석인들은 낙촌정(洛村亭)과 정자 앞 잔디 위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반주를 나누며, 장시간 돈독과 유희의 시간을 가진 후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중환(2004년 입춘회장), 수곤(2012년 입춘회장), 수강(전 한국중공업회장), 수구(전 전국치과협회장) 현종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수팔(壽八) 회장님 가족과 타을을 협찬하여 주신 세 자녀(宇鎭, 丞鎭, 圭鎭) 내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입춘회 총무 수덕(壽德)記

영화 “파묘” 토틀런트 종구 현종 연기 인생 60년



영화 “파묘”는 금년 2월에 개봉해서 3개월 만에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하여 흥행을 이루었다고 한다. 성인이라면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 영화는 잘 아는 바와 같

이 우리 廣李 문중의 연기자인 토틀런트 종구 현종이 출연하였다. 배역으로 보국사 주지 스님 역을 맡아, 강한 존재감과 노련한 연기로 열연하였다. 종구 현종은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18대 후손으로,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서 부친인 익재 선생과 모친 이순주 여사 사이에, 9남매(6남 3녀)중 사남(四男)으로 1950년 출생하였다.

종구 현종은 엄격하고 인자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1968년 서라벌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종구 현종은 예능에 소질이 있어, 1967년 재학 중 연극배우로 데뷔하여 활동하였다. 1977년 동양방송(현 KBS) 성우 공채에 당당히 합격하여 성우로 활약하였다. 또한 종구 현종은 성우, 배우, 토틀런트로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그는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여 시청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출연작을 살펴보면 드라마 부분에서 제2공화

국, 제3공화국, 제5공화국, 미우나 고우나, 별에서 온 그대, 비켜라 운명아,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야인시대, 영웅시대, 유리 가면, 거침없이 하이킥 등 15편과 영화 부분은 추격자를 비롯해서 베테랑, 부당 거래, 성난 변호사, 역린, 인사동 스캔들 등 20여 편을 소화하였고, 외화에서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대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50여 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검정 고무신을 비롯해서 라이온 킹, 미녀와 야수 등 60여 편에 출연하였다.

이 밖에도 케이블 TV 부분, 라디오 드라마 부분, CF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한 다재다능(多才多能)의 인재(人才)이다. 이뿐만 아니다. 종구 현종은 명창(名唱)으로 우리 가락인 경기 민요와 판소리도 전수하여 그야말로 만능 재주꾼이다.

이 밖에도 종구 현종은 한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0년 초부터 우리말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말이 바르게 쓰이도록 유튜브 강의를 비롯해서 대학교, 군부대, 방송 강의 등 바른말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35년 가까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말을 바르게 쓰도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종구 현종은 방송인(아나운서)들이 잘못 발음하는 것을 통탄해하며 “뉘소리”로 (예 : 자장면이 아닌 짜장면) 자연스러운 발음을 구사(驅

使)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른말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책을 간행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우리말의 표준이 되는 언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책을 집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남다르게 우리말을 사랑하기에 세종대왕께서 찬(撰)하신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종친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종구 현종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베테랑 연기자로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본다.

종구 현종 세계(世系)

1대 둔촌 - 2대 청백리공 - 3대 총회공 - 4대 광릉부원군 - 5대 세필 - 6대 수함 - 7대 이관 - 8대 의남 - 9대 정흥 - 10대 상원 - 11대 계영 - 12대 회근 - 13대 행오 - 14대 장점 - 15대 경복 - 16대 기하 - 17대 선희 - 18대 병익 - 19대 봉래 - 20대 용대 - 21대 익재 - 22대 종구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記

바로 고칩니다

전 호(398호) 4쪽 광천부원군파종회 <준계제례교육 실시> 사진은 하단 온양지역종회 <한식시제 봉행> 사진으로 잘못 게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회 소식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2024년 5월 14일 (화) 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이날 토론의 주요 의제는 1) 2024년 종원참여 및 활성화 단체지원금 지급 기준 통지의 건(대종회 요청), 2) 6월 정기회의는 6월 18(화) 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실시기로 함, 3) 6월 중 유적지 탐

방에 관련된 검토의견 수렴 4) 재경화수회 회의시 독립유공자 유족회 홍보 관련, 5) 6월 호국인물 선정 광주이씨회보에 소개 등이다.

- 유족회 총무 호순記

6월의 호국인물

독립운동가 이덕균(李德均 1879. 10. 17 ~ 1955. 3. 29) 지사(志士)

선생의 휘는 덕균(德均) 자는 성국(聖國)이니, 석탄공(石灘公) 양중(養中)의 16대손으로 1955. 3. 29 서거하여 향수 76세 이다. 1919년 3월 29일 용인 수지지역 만세 시위(군중 1500명)의 주동자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는 1986년 12월 19일 3.1운동 유공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보훈번호 19-001879)

조실부모로 불우했던 가정환경

선생은 현재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370번지에서 부친 도석공(道奭公)과 모친 무안박씨(務安朴氏)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선생이 7세 때 모친이 34세로 돌아가시고, 14세 되던 해에 부친마저 돌아가시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선생의 형님은 3살 위이고 동생은 4살이 아래였으니 어찌 하늘 아래 이토록 가혹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불굴의 의지는 소년의 정신을 학구열로 승화시켰다.

가난한 산골 살림에 고아 3형제는, 뚝뚝 뭉쳐 농사짓고 땀나루 하며,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헐벗고 굶는 날이 더 많았다 한다. 그런 와중에도 선생은 할아버지 기달공(基達公)을 자주 찾아가 글공부를 했고, 명석한 두뇌에 학업이 일취월장하여, 인근에 수재라는 소문이 자자했으며, 더우기 뛰어난 필적과 인성을 인정받아, 현재의 수지구 동천동과 고기동을 통합 관리하는 구장에 선출되었으니, 이때부터 진정한 봉사활동과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되었고, 더 훗날에는 후학을 가르치는 한학 훈장도 하였다.

수지(水枝) 만세시위(萬歲示威)의 주동자(主動者)가 되다.

공의 나이 41세 되던 1919년 3월 29일, 부락민 안종각(安鍾珪 1888~1919)과 함께 가가호호 1명씩 봉기하도록 선도하여, 운집한 주민들에게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만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일장 연설로 사기를 고조시킨 다음 미리 준비해 두었던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현재의 고기초등학교 부근에서(당시는 학교 없었음) 주민 100여명을 규합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동천동으로 진출했다. 이때(1900년대초) 고기동에는 127호가 있었다고 하니, 거의 전부가 참여한 거사였다. 고기동에서 출발한 군중은 약 2km 하류에 있는

동천동에 이르러 4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고무된 이덕균 지사는 군중을 이끌고, 또 다시 약 3km를 진출하여, 당시의 수지면사무소에 이르러 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유감없이 시위하였다.

수지면 소재지 풍덕천에서 군중이 더욱 늘어나 700여명에 이르렀고, 일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읍삼면 마북리와 언남리(현재 용인 구성)로 진출했을 때는, 무려 1,5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중이었으며, 장차 김량(용인)으로 진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포악무도(暴惡無道)한 일본 헌병대가 해산을 명령하며 위협을 가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시위를 진행하자, 일본군 헌병대가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주동자 이덕균 지사는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수괴(首魁)로 체포되었고, 안종각·최우돌 2명이 총탄에 절명하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소요사건 적극가담자로 16명이 체포되어 태형 90의 즉결심판을 받았다.(범죄인명부 참고하여 16명에게 2019년 대통령 표창 포상) 당시 조선헌병대 사령관이 작성한 <조선소요사건일람표>를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다일본 헌병대는 이덕균 지사(李德均志士)를 경성으로 압송하여,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 수감시킨 후 모진 고문을 가하며, 기타 적극 가담자와 동조자를 캐내려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홀로 계획하고 거사한 봉기임을 주장하여, 그 죄가 크다 하고, 경성지방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여, 복역 후 방면되었지만, 그 이후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거의 농사일을 못 하였다. 돌이켜 보면 선생은 7살 때 조실부모했고, 선생의 자녀 4남매 중 장자 현창(鉉昌)씨가 이때 겨우 16세였으니, 대를 이어 답습된 그 궁핍하고 암담한 살림살이의 참담함을 어찌 다 필설로 다하겠는가. 이처럼 당시 용인의 변두리 궁벽한 시골 고기리에서, 조선독립만세시위가 크게 일어나게 된 동기를 보면, 외부 인사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순수한 애국정신에 바탕한 자발적 봉기였다는 사실에 그 고귀한 역사적 가치가 돋보인다. 세월은 흘러갔어도 선생의 애국정신은 길이길이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독립운동가 이덕균 지사의 묘소와 공적비

2019년 기미년 만세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광주이씨 석탄공종중 한산군종회에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공적비(功績碑)를 숭모재(崇慕齋: 고기동 소재 광주이씨 재실)앞에 세웠고, 시민사회 단체인 머내여지도가 주축이 되어 해마다 고기리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고기초등학교에서 발대하여 동천동까지 행진하는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수백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공의 손자 석순(碩淳)씨가 주선하여 풍덕천동 새마을공원(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3)에 건립한 수지 3.1만세운동 기념탑에는 주동자인 이덕균 지사와 적극 가담자 1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가슴에 애국심을 함양시켜주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관련된 백여년전 수지면사무소의 기록문서 <범죄인명부>를 수지구청 문서고에서 찾아내어, 적극 가담자 15명 지사분들께 2019년 3.1절에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으니 늦었지만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참고자료

- 내고장 용인(이인영), 한국독립운동과 용인(김학민, 이인영), 용인사람 용인이야기(조길생)
- 머내여지도(머내여지도팀), 고기동(용인문화원 조길생)

용인군 수지면 읍삼면	폭행	무폭행	소요 인원	소요자 종별	검거인원	소요지 관할		폭 민	
						헌병	경찰	사(死)	상(傷)
	1		1,500	天, 普	35	헌병	경찰	2	3

(소요자 종별 중에서 天: 천주교인, 普: 보통민 즉 농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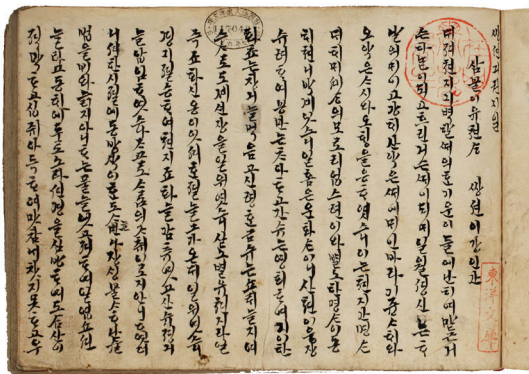
- 이덕균 지사의 증손 李龍天(述자항렬) 記

한글 고전소설 쌍선기(雙仙記)의 저자는 광주인(廣州人)이었다.

쌍선기(雙仙記)는 1980년대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 출판한 바 있어, 그후 학계에서는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 등과 같은 가문소설 및 가정소설의 전통을 계승한 19세기 장편소설로 평가되어 왔다. 쌍선기는 미완성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구성에 있어서도 별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쌍선기는 고대 소설사에 있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고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문학자들은 보고 있다.

쌍선기 주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로, 가정사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와 영웅담을 다룬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줄거리는 「중국 명대 때 신선 이태백과 선녀 능옥이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고, 인간세계의 한봉린과 주희공주로 태어난다. 이때 아들이 없던 한 회가 아들을 얻기 위해 윤씨를 맞이하는데, 본처 이씨가 아들 봉린을 낳게 된다. 불안해진 윤씨는 계교를 기도해, 한희에게 이씨를 내쫓게 하고, 봉린을 죽이려 하지만 봉린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한편 요령왕은 왕비 장씨가 주희공주를 낳고, 사망하자 허씨를 계비로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허씨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모를 꾸미 성운태자를 폐하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든다. 상인의 도움으로 장성을 쌓은 봉린은, 허씨의 조카 허여치에게 납치돼, 버려진 주희공주를 구출한다. 봉린은 주희공주와 혼인한 뒤, 반란군에 사로잡힌 촉왕을 구출한다. 요령왕은 허씨와 그의 아들을 처형하고, 봉린을 부마로 삼는다. 봉린과 주희공주는 인간세계에서 80세를 맞아, 다시 태백과 능옥으로 천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쌍선기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을 주제로 1856년(철종 7) 완성된 고전소설이다. 이 소설의 소장본(동양문고)은 5권 5책 한글 필사본으로, 총 2종의 전본(傳本)에 그치는 희귀본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이 소설의 작자는 한규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이병정(李秉正, 1812~1874)의 친필 원고본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병정과 한규 두 사람의 공동창작으로, 원고를 최종 완성해 탈고 및 정서(淨書)한 이는 이병정이라는 사실이 학계에 새롭게 밝혀졌다. 공동저자인 이병정은 관향이 광주(廣州)이고 자가 대여(大汝)로, 향리에서는 '이선달(李先達)'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또한 이병정은 죽산(竹山), 진위(振威), 용인(龍仁) 등지에서 세거해 온 명문 광주이씨 무반가문(武班家門)이었다. 학자들은 공동작자 한규와의 관계에서는 이병정의 가문이 청주한씨 집안과 혼인관계가 많았던 점으로 보아 한규 역시 혼맥으로 이어진 사돈관계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



쌍선기(雙仙記)

이 책은 한글 흘림공체로 쓰였는데 소설 본문과 함께, 발문 1건과 필사기 1건도 수록되어 있다. 병진년(1856년) 가을에 쓰인 발문에는 성이 이(李), 자가 대여(大汝)인 남성(이름 부분은 훼손됨)이 청운의 꿈을 이루지 못해, 죽산현(竹山縣) 율리촌이라는 곳에 은거해 살다가, 재주와 학문이 뛰어나고 식견이 높은 '한규'라는 이름의 갑부 친구와 함께, 평소 소설을 많이 읽고 비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서로 소설책을 볼 때마다 그 문체의 좋고 나쁨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죽어서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겠다며 쌍선기를 지었다고 적었다. 계축년(1853년) 음력 12월부터 시작하여, 원래는 7~8권 분량으로 엮고자 하였으나, 서로가 이사하여 헤어지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엮지 못하고, 결국 이병정이 혼자 친필로, 원고를 병진년(1856년) 음력 8월 12일에 서둘러 끝마침으로써, 원고를 완성해 책으로 엮기까지, 2년 9개월여가 걸렸다는 것이다. 완성본은 이병정이 진위현(振威縣)으로 이사한 이후에 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발문에서는 자신이 깨끗이 정서한 이 「쌍선기」를, 보배로 여기라면서 19살의 며느리(함안윤씨, 1938~1923)에게 물려준다고 썼다. 이외에도 이병정은 며느리에게 척사륜음(斥邪輪音, 금속활자본), 판부정렬(判付定例, 한문필사본), 서전언해(書傳諺解, 목판본), 둔촌잡영(遁村雜詠, 목판본), 창선감의록(昌善感義錄, 한글필사본), 김진옥전(金振玉傳, 한글필사본), 장풍운전(張豐雲傳, 한글필사본) 등의 책들도 함께 전하였다고 한다.

이병정은 진위, 죽산, 용인 등지에서 세거해 온 광주이씨 후손으로, 병마절도사를 다수 배출한 전통적 명문 무반가문이다. 이병정 개인은 현달하지 못했으나, 한문은 물론이고 한글로도 문필 활동을 했으며, 직접 지은 <쌍선기(雙仙記)> 외에도 많은 소설을 읽고 필사했다. 학자들은 쌍선기는 고전소설 '전사본(傳寫本, 저자 또는 편자가 작성한 고본(稿本)을 제삼자가 그대로 옮겨 베껴 쓴 책이나 글씨)'의 전승 및 수용의 문제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설가 광주이씨 인물의 발굴이다.

(문학 정보 및 고전문학 연구 44권 참조)

이병정(李秉正)의 가계

휘	자	생몰	주요관직	묘소	비고
극배(克培)	겸보(謙甫)	1422~1495	영의정	강동구 암사동	광릉부원군
세필(世弼)	정보(廷輔)	1472~	대사헌	부평 작천	문과
수함(守謙)			기후서 별제	평택시 진위	
이관(以觀)	윤수(允需)	1505~1563	충의위	포천 서운동	
익남(嶷男)	자숙(子夙)	1537~1594	충무위 부호군	평택 진위	
정홍(廷弘)	공언(公彦)	1567~1633	수운판관, 증좌승지	선고 묘하	시고1권
상원(象元)	백현(伯玄)	1584~1645	황해병사, 증호조판서	선고 묘하	무과, 원종훈
만영(晩榮)	취숙(就叔)	1624~1670	감찰, 증호조참판	진위 송탄	무과
대근(大根)	회경(晦卿)	1654~1713	금천군수, 증호조판서	용인 남사	무과
행겸(行儉)	중약(仲約)	1681~1749	오위도총부 부총관	선고 묘하	무과, 평안진무공신
장익(長益)	화숙(和叔)	1705~1787	통덕랑	선고 묘우강	
현복(顯福)	공저(公著)	1723~1793	경원부사	선고 묘우강	무과
기경(基敬)	은백(殷伯)	1745~1816	첨중추, 증좌승지	진위 북면	무과
극희(極會)	원숙(圓叔)	1789~1860	경상좌병 우후	음성 삼성	무과
병정(秉正)	대여(大汝)	1812~1874		음성 삼성	
응래(膺來)	형중(衡仲)	1842~1890	부사과	음성 삼성	무과
용숙(容肅)	경립(景立)	1866~1933	부사과	음성 삼성	무과
봉재(鳳載)	순구(舜九)	1892~1953		음성 삼성	

광이 산악회 행사

광이 산악회(회장 종철)는 지난 5월 26일(일요일) 회원 남자 15명 여자 3명 총 18명이 오전 7시에 모여, 간단하게 김밥과 컵라면을 들고, 곧 바로 성남 선영 등촌선생, 사인공 묘역에 별초를 시작하였다. 여러 회원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일찍이 별초를 무사히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였다.

묘소에 정성껏 준비 해온 제사용품으로 고유를 올린후 간단하게 음복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휴식을 하였다. 참석하신 분은 회장 종철내외, 복수내외, 종경내외, 종덕대장, 전 시하회장, 종봉, 종우, 무환, 문재, 진호, 명수, 영교, 석준, 하재, 광재이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와 맥주로 반주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장으로서는 회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 6월 산악회 행사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광이 산악회 회장 종철 기

회보 원고 모집

1. 광주이씨 대종회는 회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우리 선조들에 관한 글이나 종중행사, 종친화제, 미담, 시·수필 등 문예작품, 종인 제안 등 우리 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성해 보내 주십시오. 회보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 廣州 문중의 역사를 쓰고 전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기록으로 후대에 남겨줄 수 있도록 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광주이씨회보는 매월 초 발행합니다. 원고를 제출하시는 종인들께서는 회보 발행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셔서, 늦어도 전달 마지막 주까지는 원고의 송고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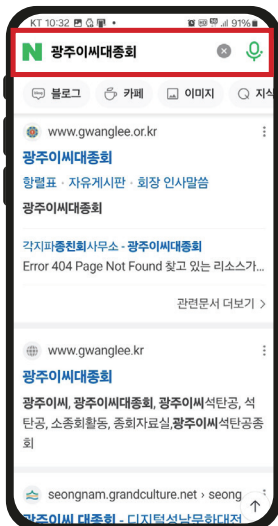
3. 원고를 보내실 곳 :

- 이메일 : gwanglee1720@nate.com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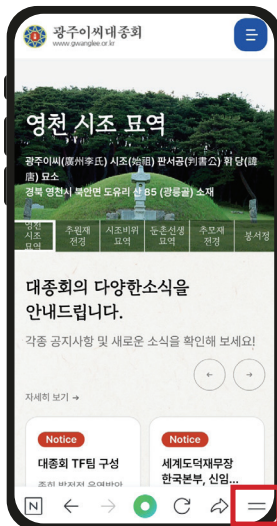
<광주이씨대종회> 홈페이지 핸드폰 홈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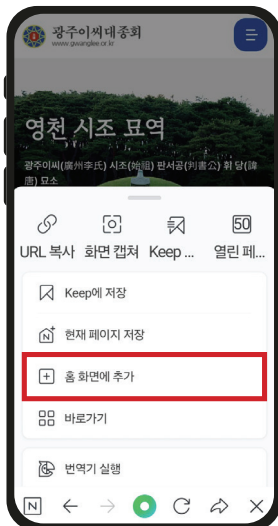
네이버에서 <광주이씨대종회>를 검색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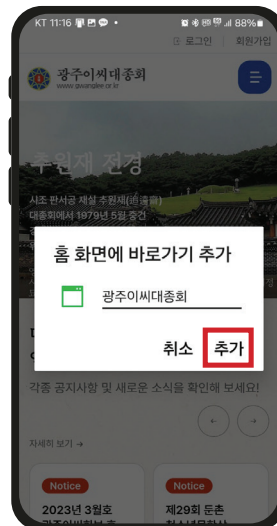
하단 빨간 네모 부분을 누른다.

3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른다.

4



추가를 누른다.

5



홈화면 바로가기 완성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4年 6月 1日

<제399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桂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桂 鼎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4년 5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 소	이름	금액	주 소	이름	금액	주 소	이름	금액	주 소
이화래	10,000	수원 권선	이종윤	10,000	경기 수원	이종건	10,000	경기 과천	이명수	10,000	경기 의왕
이종래	20,000	대전 중구	이성재	10,000	경기 구리	이승재	10,000	경기 수원	이정재	10,000	충북 청주
이인교	10,000	서울 종로	이종태	10,000	경기 수원	이종혁	10,000	경기 용인	이종완	10,000	경기 안성
이근재	10,000	경기 과천	이관재	10,000	경기 이천	이종성	10,000	경기 성남	이만재	10,000	충북 청주
이준호	10,000	전남 고창	이현재	10,000	서울 광진	이종태	10,000	경기 수원	이영수	10,000	충북 청주
이양재	10,000	경기 광명	이근재	10,000	서울 마포	이민재	10,000	서울 송파	이창수	10,000	경기 용인
이형재	10,000	전남 보성	이진재	10,000	서울 광진	이종경	10,000	경기 용인	광릉부원군파 광명소종회 10,000X49=490,000		
이경제	10,000	서울 강남	이종관	10,000	경기 용인	이진수	10,000	서울 송파	이종형	10,000	경기 안양
이성열	10,000	전남 화순	이택수	10,000	경기 이천	이종학	10,000	경기 성남	이응수	10,000	대전 서구
이정재	10,000	서울 성동	이종원	10,000	경기 평택	이종설	10,000	서울 송파	이종현	10,000	경기 광명
이득규	10,000	경기 부천	이종훈	10,000	경기 부천	이종균	10,000	서울 송파	이종우	10,000	경기 안양
이원재	10,000	서울 송파	이남수	10,000	경기 이천	이종찬	10,000	서울 강남	이효수	10,000	경기 안양
이현재	10,000	경기 안산	이진수	10,000	서울 동대문	이종혁	10,000	서울 송파	이종강	10,000	경기 광명
이용만	10,000	전북 익산	이준수	10,000	경기 이천	이석철	10,000	충남 보령	이장원	10,000	경기 광명
이용석	10,000	전북 익산	이금재	10,000	경기 이천	이현수	10,000	서울 성동	이종상	10,000	경기 광명
이용원	10,000	전북 익산	이종택	10,000	경기 안산	이석화	10,000	서울 광진	이문선	10,000	경기 광명
이용선	10,000	전북 익산	이종규	10,000	서울 광진	이석기	10,000	경기 안양	이창재	10,000	경기 수원
이현동	10,000	전북 익산	이정수	10,000	서울 양천	이종영A	10,000	인천 미추홀	이주식	10,000	경기 성남
이윤재	10,000	서울 강남	광천부원군파 10,000X100=1,000,000			이한영	10,000	서울 중구	이종주	10,000	경기 안양
이명재	10,000	전남 영암	이종학	10,000	서울 송파	이경재	10,000	경기 수원	이강수	10,000	경기 광명
이정식	10,000	전북 전주	이영래	10,000	경기 군포	이종학	10,000	경기 수원	이경수	10,000	인천 연수
이정수	10,000	대전 서구	이종문	10,000	경기 고양	이응수	10,000	경기 성남	이주환	10,000	경기 안양
이현식	10,000	경기 이천	이종경	10,000	경기 용인	이영수	10,000	경기 성남	이주희	10,000	경기 평택
이종철	10,000	서울 강동	이종선	10,000	경기 이천	이범수	10,000	경기 성남	이병수	10,000	인천 연수
이성준	10,000	서울 중랑	이석광	10,000	경기 파주	이종영B	10,000	경기 수원	이종봉	10,000	경기 여주
이호준	10,000	경기 수원	이윤수	10,000	서울 송파	이종만	10,000	전남 신안	이대수	10,000	경기 광명
이종규	10,000	서울 금천	이성수	10,000	서울 성동	이종석B	10,000	충남 아산	이동재	10,000	경기 안양
이오륜	10,000	경기 양평	이종갑	10,000	경기 수원	이면재	10,000	충북 청주	이주일	10,000	경기 안산
이종현	30,000	서울 성북	이종협	10,000	서울 성동	이옥재	10,000	경기 성남	이윤재	10,000	인천 미추홀
이주석	20,000	미기입	이종석A	10,000	서울 중랑	이경수	10,000	서울 노원	이인수	10,000	경기 수원
이주식	10,000	충남 천안	이용복	10,000	충북 괴산	이종철	10,000	충북 충주	이종칠	10,000	경기 시흥
이동희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덕	10,000	서울 강동	이용대	10,000	서울 관악	이종모	10,000	경기 광명
이용권	10,000	대전 서구	이종후	10,000	서울 송파	이용주	10,000	충북 충주	이주용	10,000	경기 시흥
이영래	10,000	경기 구리	이종선	10,000	서울 서초	이성재	10,000	충북 청주	이주흥	10,000	경기 안산
이용운	10,000	전북 순창	이종관	10,000	서울 송파	이종민	10,000	경기 성남	이주원	10,000	경기 광명
석창종친회(이천) 10,000X38=380,000			이종필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빈	10,000	서울 송파	이주성	10,000	경기 군포
이은재	10,000	서울 금천	이영수	10,000	서울 송파	이종덕	10,000	서울 송파	이원엽	10,000	경기 안양
이종해	10,000	경기 이천	이종안	10,000	경기 고양	이용학	10,000	충북 괴산	이종술	10,000	경기 남양주
이인재	10,000	경기 이천	이종구	10,000	경기 평택	이영재	10,000	대전 서구	이주현	10,000	경기 시흥
이철재	10,000	서울 노원	이학재	10,000	경기 수원	이옥래	10,000	전북 전주	이형수	10,000	경기 광명
이완수	10,000	경기 이천	이승재	10,000	서울 성북	이응래	10,000	광주 서구	이종규	10,000	경기 의왕
이종제	10,000	경기 용인	이종억	10,000	경기 평택	이승래	10,000	광주 북구	이태수	10,000	경기 안양
이대수	10,000	경기 이천	이종수	10,000	대전 서구	이흥래	10,000	전북 전주	이주호	10,000	경기 수원
이성재	10,000	경기 용인	이석환	10,000	충남 천안	이종화	10,000	서울 마포	이종경	10,000	서울 은평
이형재	10,000	인천 부평	이정수	10,000	경기 광주	이명수	10,000	인천 부평	이주영	10,000	경기 안양
이홍재	10,000	경기 구리	이후재	10,000	서울 송파	이석열	10,000	충남 천안	이은수	10,000	경기 군포
이종철	10,000	경기 이천	이창래	10,000	전북 전주	이성길	10,000	경기 수원	이섬수	10,000	경기 오산
이학재	10,000	경기도 안성	이두재	10,000	경기 화성	이현재	10,000	경기 수원	이주엽	10,000	경기 안양
이종수	10,000	서울 영등포	이원재	10,000	충북 충주	이종국	10,000	경기 안양	이유수	10,000	경기 군포
이종근	10,000	경기 오산	이영재	10,000	충남 홍성	이종영C	10,000	경기 수원	이주섭	10,000	경기 안성
이종학	10,000	경기 이천	이찬수	10,000	서울 송파	이완길	10,000	경기 부천	이흥수	10,000	서울 금천
이종섭	10,000	경기 남양주	이성호	10,000	경기 수원	이광재	10,000	경기 수원	이종언	10,000	경기 안양
이현수	10,000	경기 이천	이황수	10,000	서울 송파	이종찬	10,000	경기 화성	이찬수	10,000	경기 군포
이일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종국	10,000	서울 마포	이봉수	10,000	서울 동작	이현수	10,000	경기 광명
이종구	10,000	경기 의정부	이광재	10,000	경기 수원	이승수	10,000	세종 시청대로	이겸수	10,000	경기 수원
이봉재	10,000	경기 이천	이진재	10,000	서울 송파	이준석	10,000	경기 이천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